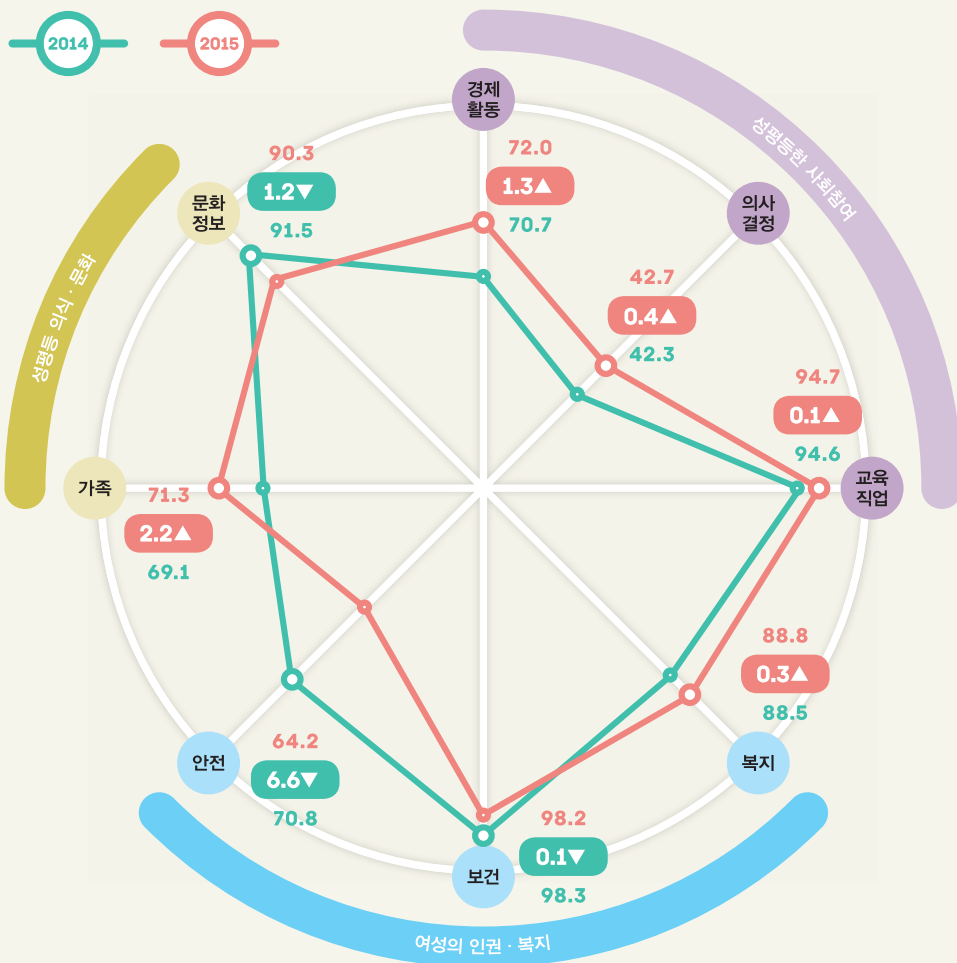




대전시 성평등지수 전년 대비 가족 분야 상승한 반면 안전 분야 하락

대전시 지역성평등지수 분야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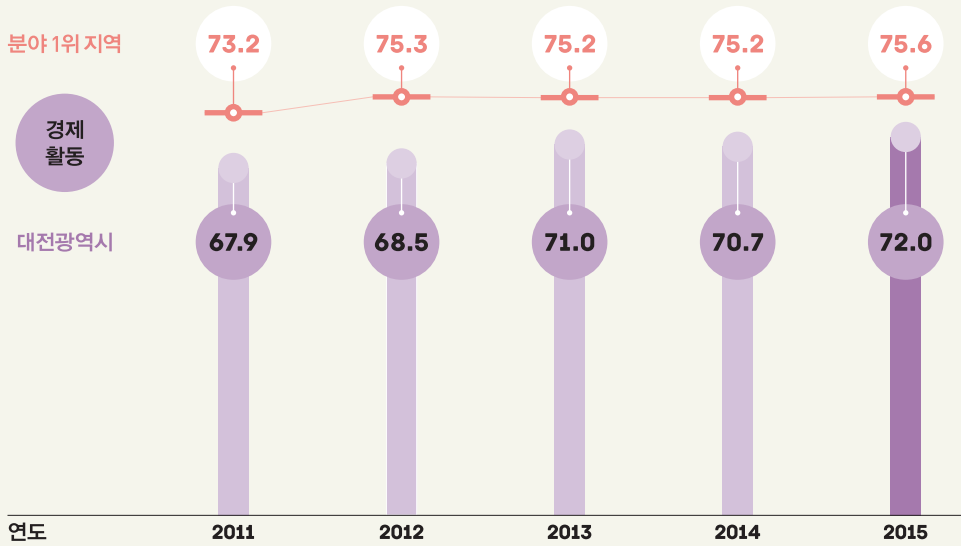
2015년 기준 지역성평등지수를 시·도별 상위, 중상위, 중하위, 하위 4등급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대전시는 강원, 서울, 제주와 함께 '상위' 지역으로 선정됐다. 8개 분야별 대전시 지역성평등지수 값을 보면 보건 분야가 98.2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교육·직업 훈련 분야(94.7점), 문화·정보 분야(90.3점), 복지 분야(88.8점) 순으로 성평등 수준이 높았다. 이에 비해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분야는 의사결정 분야로 42.7점이었고, 그 다음은 안전 분야(64.2점), 가족 분야(71.3점), 경제활동 분야(72.0점)로 나타났다. 2014년과 비교해 보면 5개 분야의 점수가 상승한 가운데, 가족 분야(69.1 → 71.3점, 2.2점↑)에서 상승폭이 컸다. 반면 안전 분야(70.8 → 64.2점, 6.6점↓)는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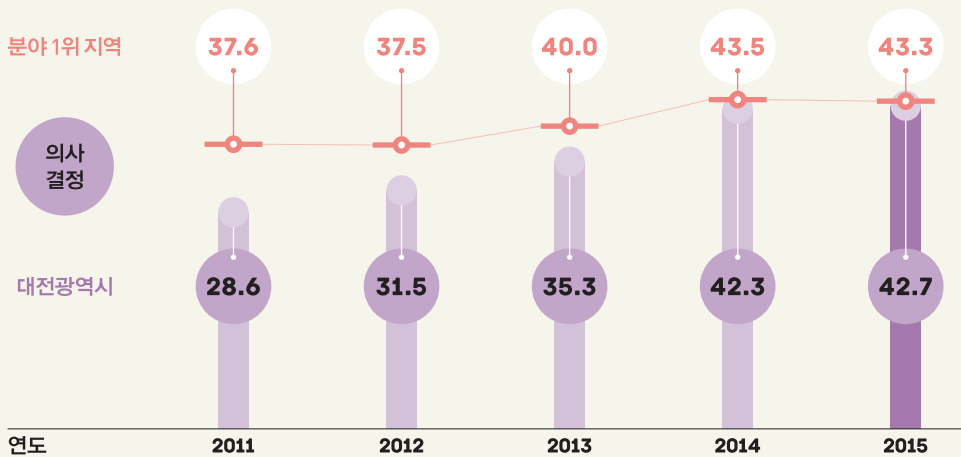
*출처 | 여성가족부,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대전시 8개 분야별 비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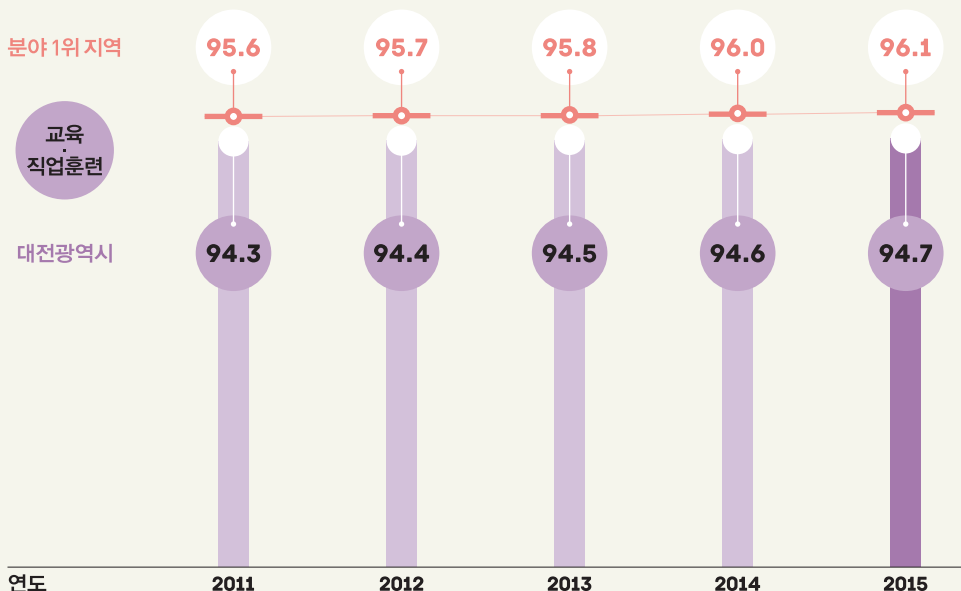
*각 연도는 통계생산 기준 *출처 | 여성가족부,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대전시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 수준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67.9점, 2012년 68.5점, 2013년 71.0점, 2014년 70.7점, 2015년 72.0점으로 2014년 소폭 하락했으나 다시 상승하는 양상이다. 이는 2015년 경제활동 분야 성평등지수 전국 평균(70.5점)보다 1.5점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75.6점)보다는 3.6점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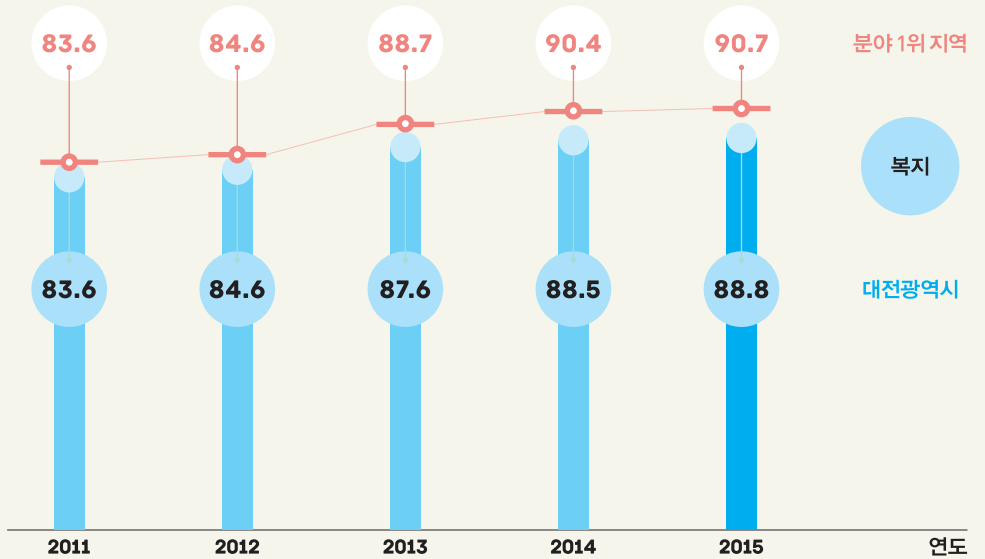


2015년 대전시 의사결정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42.7점으로 전국 평균(27.4점)과 비교해 15.3점이나 높지만 분야 1위 지역(43.3점)보다는 0.6점 소폭 낮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28.6점에서 2015년까지 해마다 꾸준히 개선되었으며, 특히 2014년에는 2013년에 비해 7.0점이 오르면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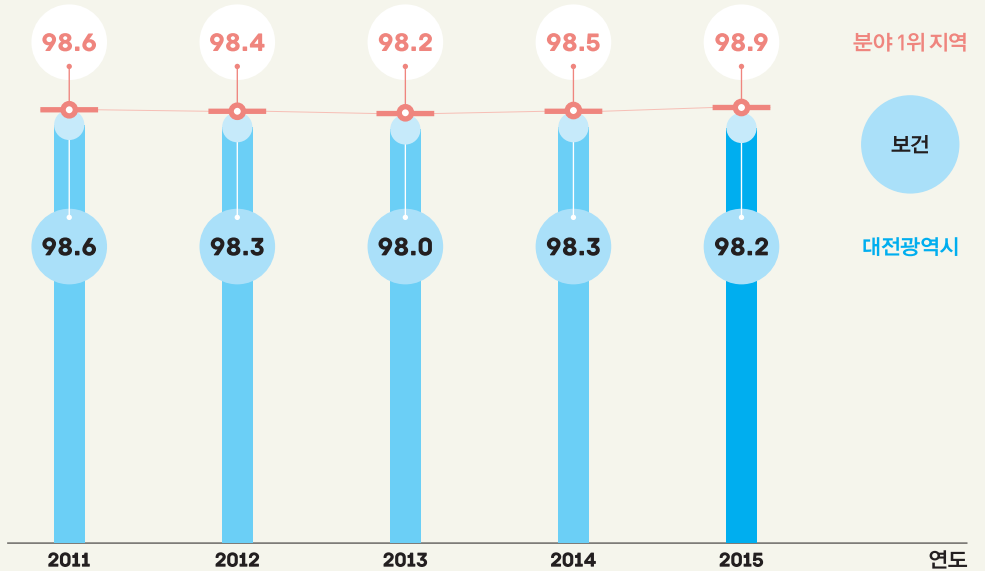


대전시 교육·직업훈련 분야의 연도별 성평등 수준을 보면, 2011년 94.3점, 2012년 94.4점, 2013년 94.5점, 2014년 94.6점, 2015년 94.7점으로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15년 교육·직업훈련 분야 성평등지수 전국 평균(94.5점)보다 0.2점 높은 수준이며, 1위 지역(96.1점)과 비교해 1.4점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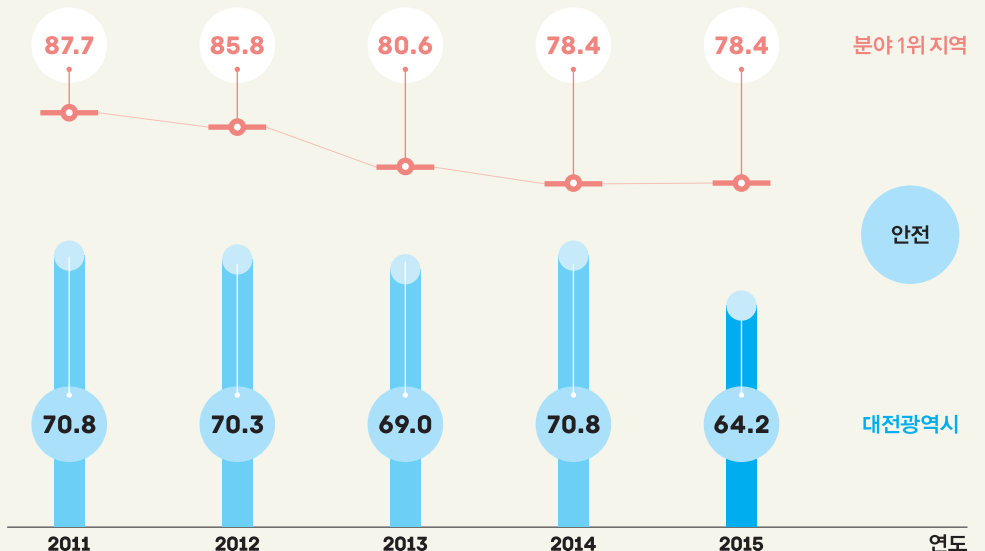
2015년 대전시 복지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88.8점으로 전국 평균(85.4점)보다 3.4점 높은 수준이며, 분야 1위 지역(90.7점)보다는 1.9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83.6점, 2012년 84.6점, 2013년 87.6점, 2014년 88.5점, 2015년 88.8점까지 해마다 꾸준히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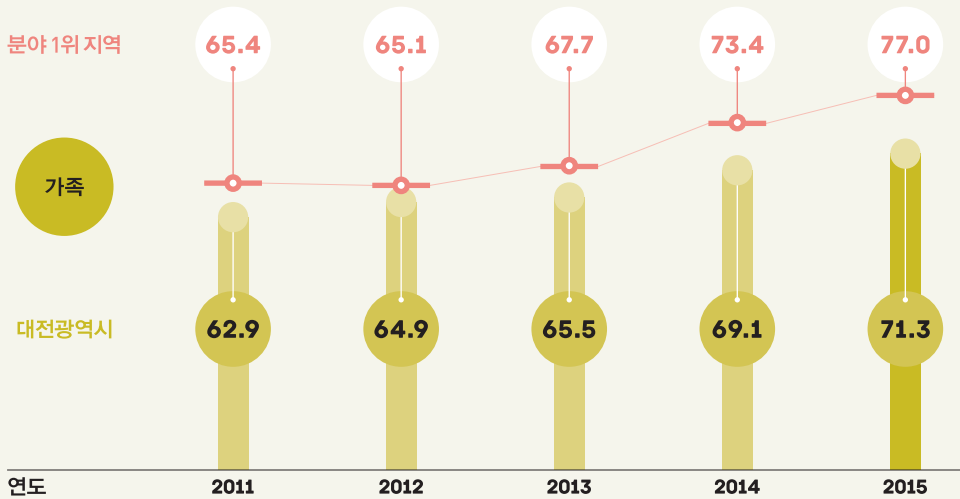


대전시 보건 분야의 성평등 수준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98.6점)부터 2013년(98.0점)까지 하락 후 2014년 98.3점으로 소폭 상승했다가 2015년 98.2점으로 다시 소폭 하락했다. 이는 2015년 보건 분야 성평등지수 전국 평균(96.0점)보다 2.2점 높고, 해당 지표 1위 지역(98.9점)보다는 0.7점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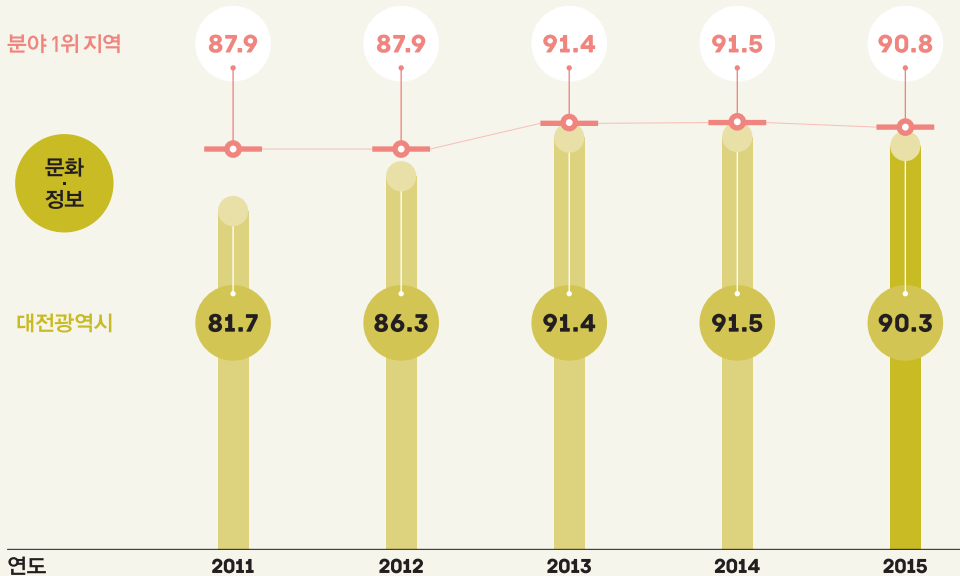


2015년 대전시 안전 분야의 성평등지수 값은 64.2점으로 전국 평균(65.2점)과 비교해 1.0점 낮고, 분야 1위 지역(78.4점)보다는 14.2점이나 낮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70.8점, 2012년 70.3점, 2013년 69.0점으로 하락 추이를 보이다가 2014년(70.8점) 소폭 상승했으나, 2015년 전년 대비(6.6점↓) 큰 폭으로 하락했다.





대전시 가족 분야의 연도별 성평등 수준을 보면, 2011년 62.9점, 2012년 64.9점, 2013년 65.5점, 2014년 69.1점, 2015년 71.3점으로 해마다 꾸준히 상승 양상을 보였다. 이는 2015년 가족 분야 성평등지수 전국 평균(68.7점)보다 2.6점 높은 수준이며, 가족 분야 1위 지역(77.0점)과 비교해 5.7점 낮은 수준이다.



2015년 대전시 문화·정보 분야의 성평등 지수 값은 90.3점으로 전국 평균(87.7점)보다는 2.6점 높으나, 해당 분야 1위 지역(90.8점)보다는 0.5점 소폭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81.7점)부터 2014년(91.5점)년까지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2015년 전년 대비 1.2점 하락했다.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



▲ 보라색 넥타이로 이번 이벤트에 동참한 유재일 대전세종연구원장과 센터 연구원들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와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서 지난 3월 8일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작은 이벤트를 진행했다. 페미니즘

을 상징하는 '보라색' 드레스 컬러를 맞추는 직원들에게 커피 쿠폰을 지급하고, 3.8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를 공유했다.

*3.8 세계 여성의 날이란 1908년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불타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미국 노동자들이 쫓겨한 날을 기념하는 날로, 1975년부터 매년 3월 8일 UN에 의하여 공식 지정되었다.

대전세종 정책엑스포 2017 제8회 대전세종여성정책포럼



이번 포럼은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세력화'라는 주제로 열렸다. 김혜경 한국여성학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이혜숙 경성대 교수가 '여성의 정치참여와 정치세력화: 담론과 과제'로, 김경희 대전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여성 정치세력화의 현황

과 과제: 총선과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이진옥 전대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가 '양성평등 지방자치와 남녀동수 기초의회제: 타당성 및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문경희 창원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정현 대전광역시의원, 신상숙 서울대 여성연구소 책임연구원, 이한태 충남대 법학연구소 전임연구원, 김진화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교육위원장, 주혜진 대전세종연구원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이 토론자로 참가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 및 정치진출'을 비롯해 '여성 직업정치인 양성'에 대해 논의했다.